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19. 6. 20. / (총 3 매)			
보험정책과	과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2710
	담 당 자	박 정 우		044-202-2705
보험급여과	과 장	이 중 규		044-202-2730
	담 당 자	이 선 식		044-202-2745

“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하고, 건강보험 재정 관리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도록 할 것”

(6월 20일자 조선일보, “文케어 2년, 중소병원이 쓰러진다”,
“환자 따라 간호사도 서울로.... 지방 의료진 씨가 마른다.”
“당장은 싸게 진료받지만, 다음 정부는 건보 재정위기”, 보도 관련)

□ 설명 내용

<1> ‘대형병원 환자 집중’ 관련

- 복지부는 서울 대형병원 등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,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
 - 진료비 통계 뿐 아니라 환자수, 내원일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간의 추이도 분석 중입니다
-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,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,
 -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<2> 간호사 등 지방 의료인력 부족 관련

- 간호사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전반적인 보건 의료 인력 수급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지역 선호 등 다양한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복지부는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」을 발표하였습니다.(‘18.3월)
- 이와 관련하여,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종합병원·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야간간호료를 신설하고,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.(‘19.10월)
 - * (야간간호료)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수당 지원
 - (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)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추가고용 유도
- 지방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·광역시 소재의 종합병원·병원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(‘19.10월)
 - 의료취약지 병원에만 적용하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취약지 종합병원과 모든 군지역 병원까지 확대하여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(‘19.10월)
 - * 대상기관 : (현재)의료취약지 병원 → (개선)의료취약지 종병·병원, 군지역 병원

<3>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 관련

-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간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
 -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완화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하지 못할 경우 적립금이 2027년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(지출 효율화할 경우 4.3조 원 보유 전망도 병행 제시)입니다.
 - 현재 정부는 불법 사무장병원, 면허대여 약국 근절,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,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다각적인 재정 지출 합리화 방안을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입니다.
- 이와 함께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 활용, 매년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은 과거 수준('07~'16년간 평균 3.2%) 내에서 관리할 계획으로
 -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보험료율이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 급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.